

이야기 여성사

말로 듣는 한국 여성의 삶과 역사 — 광복군 김정옥 (2)

“달거리 피가 굳어서 살을 파고 들어도 훈련했어”

“언니네 세탁소에서 일을 했잖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언니네는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갔어. 세탁소를 내가 맡아서 했는데 거기에 광복군 공작원들이 세탁소에 와서 옷을 많이 빌려 입고 갔어. 변장을 많이 해야 하니까.”

공작원들이 자주 찾아 오다보니 때때로 자금도 마련해 주게 되고 음식도 챙겨 줬지. 나라 찾기 위해 일하는 분들이다 생각하니까 능력 닿는 한 도와줘야겠다 싶었거든.

나라 잃은 백성의 설움을 많이 겪었으니 아무리 배우지 못한 여자지만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알지. 그분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나도 기회가 되면 독립운동을 하는 데 일조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남편과는 사상이 달랐어”

선생의 세탁소에는 김광운 등 5명의 밀사들이 드나들며 군자금에서부터 차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다.

처음 안면치레로 한두가지 광복군들의 청을 들어주다가 차츰 선생은 내부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했고, 애국심이기도 했고, 사명감이기도 했다.

“조선에 살때도 그랬지만 중국에 와서도 식민지 국가의 국민이라고 얼마나 무시받고 설움을 당했는지 몰라. 사람취급도 못받았어. 누가 교육을 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우리도 독립된 조국에서 떳떳하게 주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어. 그래서 광복군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지.”

나라 잃은 백성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선생과는 달리 남편은 광복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내심 못마땅해 했다. ‘모르는체 하라’는 정도로 선생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던 남편이 시간이 흐를수록 광복군과의 접촉을 이상하게 바라보며 억지를 썼다.

“결혼하고 석달이나 됐나. 남편이 발악을 하면서 너 광복군들하고 좋아 지내니까 그놈들에게 가 살라고 그러더라고. 애초 결혼할 때부터 애뜻한 마음은 없었지만 나도 그런 꼴을 보니까 정나미가 떨어졌어.”

남편은 그길로 ‘광복군들하고 잘 살라’는 말을 던져 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과부 아닌 과부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러나 김 선생은 ‘오히려 잘됐다’ 싶었다. ‘사상이

다른 남자와는 살수 없다’는 것이 짧은 결혼 생활을 통해 김 선생이 일찌감치 내린 결론이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대장부다운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선생에게는 결혼은 ‘죽쇄’와도 같았다.

당시 선생은 광복군 적지구 공작대 연락원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연락원 활동을 오래 하지 못했다. 낯선 남자들의 잦은 왕래가 이웃의 눈에 띄었는지 이웃의 누군가가 밀고를 했다. 선생은 일본 형사들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세월이 흐를대로 흘렸건만 당시의 경험은 지금도 온몸을 움찔거릴 정도로 끔찍하다.

“잡아 가더니 다짜고짜 권총을 어디에 숨겼느냐고 그래. 권총 없다고 했더니 수류탄은 어디에 두었느냐고 또 물어. 나는 수류탄은 구경도 못해봤다고 했지. 일본놈들이 광복군들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냐고 물어 봐도 절대 대답을 안했지.

그랬더니 고문을 해. 그림 그리느라 짧은 연필 있잖아? 그것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손가락을 맞대게 하고 서는 마구 돌리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

연락원 활동으로 일본군에 고문

또 ‘소젓 몽땅이’라고 소의 힘줄로 채찍을 만든 건데 그것으로 한번 등을 때리면 살이 찢 갈라질 정도야.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했더니 이제는 수백개의 못을 박아 놓은 판자 위를 구르래.

그것 만은 정말 못하겠어. 광복군 활동한지 몇달 밖에 안됐는데 내가 뭘 알겠느냐고 더 할말이 없다고 하면서 죽어도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더 나올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고문을 그치더군. 아마 나를 계속 붙잡아 두는 것 보다는 풀어주고 광복군하고 계속 접촉하도록

해서 정보를 빼내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다음 날 풀어 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 줘. 앞으로 한국 사람이 와서 뭘 해달라고 하든지 돈을 요구하면 꼭 전화를 하래. 알았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 5일 만이야.”

물론 김 선생은 일본의 요구를 들어 줄 생각을 없었다. 고문을 받고 풀려나면서 광복군에 입대해 전쟁터에 나가야

밀빵에 호박국으로 끼니 때워도 마음만은 뿌듯 광복군 공작대원 활동 못마땅해 한 남편과 결별

겠다는 생각을 다져 먹었다. 후방에서 신경전을 벌이느니 차라리 영예롭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 싶었다. 선생을 풀어주고 일본군은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았다. 수시로 찾아와 검색을 하고 선생을 추궁했다.

“어렵게 만난 공작 대원에 게 더이상 무서워서 혼자 살수 없으니 광복군에 입대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어. 그 사람이 부양에 있는 광복군 본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줬어. 부양이라면 일반 사람들이 한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산골 오지야.”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 선생은 부양에 있는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다. 세탁소는 10만원에 위탁시키고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임신부로 위장했다. 열흘을 걸어 제3지대에 도착해 선생은 부대 앞

에 내걸린 태극기를 부여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마음껏 독립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태극기 부여안고 감격의 눈물

당시 광복군 제3지대엔 여성대원이 20여명이 있었다. 가장 최고 지위엔 부대본부의 오광심 기요비서(機料秘書)가

있었고 여군소대 선임대원인 정인덕이 있었다. 평북 선천 출신의 오광심은 지난 63년 독립장에 서훈된 인물이다(본지 340호, ‘광복 50년, 본단의 역사를 진단한다’ 3편 중).

그러나 이들이 모두 김 선생과 같은 이유로 입대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이 광복군에 지원한 남편을 따라 들어온 주부들이었다. 입대 이유야 달랐지만 훈련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다.

부대에 들어가자마자 간단한 기념촬영을 마치고 그날로 훈련을 시작했다. 군인으로서

의 기본 수양을 위해 입대 후 3개월 간은 이른바 ‘지옥훈련’을 해야 했다. 여자라고 별도의 대우가 있을 순 없었다. 마땅한 무기도 없었다. 나무로 깎은 칼과 총이 전부였다. 구르고, 달리고, 기어 오르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었다.

“변변한 잠자리는 물론이고 이불도 없어. 남자대원들이 만든 흙집에서 수수대를 깔고 그 위에 벼집을 깔고 그대로 잠을 잤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에 붙어 있는 지푸라기를 서로 털어줬어. 제일 힘들 때는 달거리를 할 때야. 지금처럼 생리대는 상상도 못하지만 천조각 하나 구할 수 없었으니까 군복에 그대로 흘렸지. 피가 흘러서 딱딱하게 굳으면 살을 파고 들어 상처가 났어. 생리통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런 옷을 입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중, 삼중으로 통증을 느껴야 했어. 달거리 한다고 훈련에서 빠질 수도 없었어. 군인이 여자, 남자가 어디에 있냐고 부대장이 엄명을 내렸어.”

먹을 것이라고는 중국인들이 보내준 밀로 만든 빵과 묽은 호박국이 전부였다. 훈련 중 잠시 쉬며 밀빵과 호박국을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3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김 선생은 구호대에 배치됐다. 부상당한 군인

들을 치료하고 부부대원으로 활동하다 임신한 대원의 산파역까지 맡아했다.

훈련 후 밀빵으로 배 채워

“변변한 치료약이 없어서 총상 부위가 끓아 구더기가 끓는 사람도 있었어. 그럴 때는 별 방법이 없어. 손가락으로 상처부위의 구더기를 긁어내는 수밖에. 그리고 소독약이나 발라 주는 것이 전부야. 여성 동지들 중에 함께 부대원이 된 박지영이나 올해 나와 같이 훈장을 받은 류순희가 해산 할때 내가 산파역할을 했어. 류순희 동지는 광복군3지대에서 낳았다고 해서 아들 이름을 ‘광삼’이라고 지었어.”

발바닥이 부르들 정도로 고된 훈련을 하지만 신발도 없었다. 중국인들이 구호물품 형식으로 보내 온 천으로 만든 중국양말이 전부였다. 대원들이 한번씩 시내에 나가 양말을 받아 올 때면 그날은 작은 ‘축제’ 날이다.

“중국 여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거야. 그것을 몇백 켤레씩 한번에 가지고 들어와.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중국인들이 그렇게나마 도와주지 않았으면 광복군들이 살기 더 힘들었을 거야.”

젊고 미모였던 김 선생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는 남성 동지들도 몇 있었다. 선생도 여성동지들이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보면 외로움이 가슴에 사무치기도 했다.

그러나 광복군 동지들끼리의 연애는 상부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위해 목숨 바칠 몸’이라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김 선생의 의지가 사사로운 연애감정으로 허물어질 리도 없었다.

(정리·황금희기자)



광복군 제3지대에는 김선생을 비롯 20여명의 여자대원이 있었다. 앞줄 맨왼쪽 검정 원피스를 입은이가 김선생.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직후 동지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오른쪽 서 있는 여성중 가운데가 김선생이다.